



해외양돈뉴스



✧일본

돈육 수입 냉동 줄고 냉장 늘어

일본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냉장 돈육의 수입은 오히려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식육 속보에 따르면 3분기 말 돼지고기 수입량은 54만4천149톤으로 일년전 68만9천612톤에 견줘 21% 감소했다. 이처럼 돈육 수입이 감소했지만 냉장 수입 돈육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냉장 돈육 수입량은 16만4천228톤으로 05년 같은 기간 14만7천156톤 대비 11.6%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냉동 돈육은 37만9천921톤으로 지난해 3분기 54만2천456톤보다 30% 적게 수입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협상 결렬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진행해온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쓰오카 도시가쓰 일본 농수상은 워싱턴에서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과 회담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21개월 미만의 소만을 허용했으나 미국측에서 30개월 미만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덴마크

사육두수 증가, 생산량 감소

덴마크는 지난해 돼지사육 두수 증가에도 돼지고기

생산량이 감소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덴마크의 돼지 사육두수는 7월 1천339만두로 일년전에 비해 4.5% 가량 많았다. 그러나 자국 내 환경 규제 및 생산 비용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즉 독일 등 외국으로 생돈을 수출, 비육·도축·가공하는 방식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7월말 기준 도축 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가량 감소했으며 덴마크의 생돈을 가장 많이 수입한 독일의 경우 도축두수와 돈육 생산량이 6월말 기준 일년전에 비해 각각 4% 증가했다.

돼지고기 수출 증가

덴마크의 돼지고기 수출이 증가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덴마크의 상반기 돼지고기 수출은 60만6천톤으로 지난해 동기 55만8천톤에 비해 8.4% 늘었다. 이 가운데 EU(유럽연합)국가로의 수출은 40만톤으로 05년 같은 기간 35만500톤 대비 14%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년 상반기 63%에서 66%로 3%p 높아졌다.

덴마크 최대 수출국인 독일로의 수출은 15만600톤으로 일년전에 견줘 20% 증가했으며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로의 수출은 각각 8만4천800톤, 6만5천700톤, 3만7천900톤으로 전년 대비 5%, 12.7%, 35.8% 늘었다. 또한 러시아로의 수출은 05년 1만4천톤보다 4배 가량 증가한 5만6천700톤을 기록했다.

✧미국

'06년 미국 돼지 값 하락

100kg 기준 97.3달러 05년대비 5.5% 하락

지난해 미국의 돼지 값이 100달러 이하로 하락했다. 최근 미 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06년 평균 돼지

값(100kg 기준)은 97.3달러로 일년전 103달러에 비해 5.5% 하락했다. 이로써 미국의 돼지 값은 05년 06년 2년 연속 전년대비 하락세를 기록하게 됐다. 도체 값도 떨어졌다. 12월말 기준 평균 도체 값(100kg 기준)은 148.5달러로 05년 154.3달러 대비 3.8%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12월 돼지 값은 89달러로 전달 94달러에 견줘 5.3% 하락하면서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일년전 93달러 보다 4.3% 낮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도체 값은 143.3달러로 전달 145.5달러, 05년 동월 145달러에 견줘 각각 1.5%, 1.2%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돼지 사육두수 6,210만두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농업통계청(NAS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미국의 돼지 총 사육두수는 6,210만두로 전년 동기대비 1%, 3분기 대비 1%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모돈은 약 609만두로 전년대비 1%, 3분기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육돈은 약 5,610만두로 전년대비 1% 증가, 3분기 대비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월~11월 자돈 생산두수는 2,660만두 정도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녹색발광 '유전자조작' 돼지 탄생

중국 동북농업대학에서 최근 유전자조작 기술로 입, 혀, 발톱에서 녹색형광을 발하는 돼지 3두가 탄생했다.

이 대학에 의하면 이 '유전자조작' 돼지는 생명과학 학원 류충화 교수가 이끄는 관체팀의 연구에 의한 것이다. 연구멤버는 형광 해파리에서 얻은 녹색형광단백질(GFP)의 유전자를 돼지의 태아 섬유세포에 삽입하고 일련의 수술을 거쳐 친 모돈의 자궁에 이식했다.

114일간의 발육을 거쳐 녹색을 발광하는 돼지가 탄

생했다. 3두 모두 자연분만에 의해 탄생하고 건강상태는 양호하다는 것이다.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유전자조작' 돼지의 탄생은 미국, 한국, 일본에 이은 4번째의 성공이 된다.

✧ 캐나다

돼지의 해 신년 기념우표 발행

정해년 '돼지 해'를 맞아 활짝 웃는 돼지 도안이 들어간 기념우표가 캐나다에서 발행된다.

캐나다우편공사는 밴쿠버의 시그널스 디자인이 도안한 우표가 신년 기념우표로 채택돼 내년 1월5일부터 8백만장을 발매한다고 발표했다.

신년 기념우표는 밝은 오렌지색 바탕에 핑크색 돼지가 그려진 국내용 52센트 짜리와 짙은 에머럴드색 바탕에 붉은색 돼지가 그려진 국제용 1달러 55센트 짜리 등 두 종이다. 우표 전면을 차지하는 달리는 돼지의 바탕에는 중국적 체취가 물씬 풍기는 금·은 칠보세공 모양으로 꽃 문양을 그려넣었다.

도안을 맡은 디자이너 존 벨리시는 일간지 밴쿠버 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설화에서 옥황상제가 12간지 동물들을 상대로 낸 달리기 경주에 꼴찌로 들어오면서도 밝게 웃으며 기뻐하는 돼지의 모습을 담았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음력 설을 '중국 설(Chinese New Year's Day)'이라 부르며 다문화 전통의 하나로 수용하고 있다.

✧ 러시아

헝가리 가금류 수입금지 해제

러시아는 헝가리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취해진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했다. 1월 1일을 기해 철회된 수입 금지조치는 지난해 10월에 몇몇 지역에 대한 수입금지가 철회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도 철회했다.



✧ 태 국

6개월 만에 AI 재발

태국 북부 지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6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고 현지 관리가 지난 1월 15일 밝혔다.

태국 보건부 전염병통제센터의 한 관리는 북부 피트 사누로크 지방에서 100마리 이상의 오리가 몰사한 후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H5N1형 AI 바이러스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업부 축산국 관리는 문제의 장소는 야생오리가 많은 곳이라면서 "H5N1 바이러스 발견 후 주변에서 사육되던 오리 2천100마리를 살처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3년 AI가 아시아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H5N1형 바이러스가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번졌으며, 인간 감염으로 이어져 태국에서만 17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최소한 159명이 숨졌다.

✧ 베트남

모차르트 음악 듣는 이색돼지

모짜르트 음악을 매일 듣는 이색적인 돼지가 소개되어 눈길을 열고 있다.

해외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io은 베트남의 구엔 치콩씨의 농가에 있는 3,000마리의 돼지들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클래식 음악을 들은 이후 돼지들은 건강하고 무척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음악을 듣기 전보다 더 많은 새끼 돼지들을 낳는 등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농가의 돼지들은 모짜르트의 음악을 제일 좋아한다며 그 외에도 베토벤 등 교향곡들도 들려주고 있다고 한다.

✧ 인도네시아

주거지역 가금류 대량 살처분

인도네시아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퇴치를 위해 주거지역 내 가금류를 대량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 1월 18일 보도했다.

시티 파디라 수파리 보건부 장관은 "주거지역에서 가금류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베트남에서 배운 교훈"이라며 주거지역 내 가금류를 살처분한 뒤 사육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인구 밀집 지역인 자카르타 주거지역부터 가금류에 대해 마리당 1.5달러씩 보상한 뒤 살처분에 나서고 이를 AI 감염자 발생이 많은 다른 9개 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부리잘 바크리 복지부 장관은 15일 AI 확산 위험지역인 자카르타, 서부 자바와 반텐주(州), 자바섬 등 4개 지역 주거지역 내 가금류 사육을 우선 금지하고 점차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AI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5천500만 가구에서 3억 마리의 가금류를 집에서 기르면서 사람과 가금류의 접촉이 잦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다.

✧ 콜롬비아 · 앙골라

브라질산 육류 수입금지 부분해제

콜롬비아와 앙골라가 브라질산 육류에 대해 적용해온 부분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농축산업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최근 보도했다.

콜롬비아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브라질 중남부 마토 그로소 도 술 주와 파라나 주에서 구제역이 발생 사실이 알려진 이후 06년 1월 말부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 등 모든 육류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왔다. 앙골라는 이에 앞서 구제역 발생 직후인 2005년 10월 말부터 브라질 내 6개 주에서 생산되는 육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양동**